

귀어인이 묻고 어민이 답한다...목포서 귀어 스몰 엑스포

16일 목포해양대 체육관...강진·고흥 등 11개 시·군 14개 어촌계 참여
귀어 절차 상담·귀어 노하우 등 전달...어촌투어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계 어민들을 직접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집과 일자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목포해양대 체육관에서 '2025 전남귀어 스몰 엑스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귀어스몰엑스포는

지난 2018년 시작한 이래 전남 귀어 인구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귀어 스몰 엑스포의 영향으로 매년 20여명이 전남으로 귀어·귀촌하고 있으며 150여 명 이상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매년 전남 어촌계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은 지난해 194가구(35.0%)가 귀어해 가장 많았다. 충남 152가구(27.4%), 경남 54가구

(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귀어 스몰 엑스포에는 강진·고흥·보성·순천·신안·여수·영광·진도·해남·장흥·함평 등 11개 시·군 14개 우수 어촌계가 참여한다.
특히 올해 엑스포에는 개최 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민들이 200여명에 달해 귀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귀어 희망 도시민들은 엑스포를 통해 어촌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엑스포에 참여하는 어촌계와 본격적인 귀어 절차를 상담할 수 있다.
엑스포에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진도 신기어촌계 어묵과 해남 임하어촌

계 김국 시식회를 비롯, 다양한 부대행사와 귀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어귀촌종합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전남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등 홍보 부스도 마련된다.
또 전남 우수 귀어인이 참석해 예비 귀어인들에게 귀어 노하우를 전해줄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 참가자들은 올해 10월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가 제공하는 2박 3일 일정의 '전남어촌 탐구생활', 2주 간의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엑스포 참여 어촌계는 '준회원제'를 도입해 어촌계 문턱을 낮추고 귀어 희망 도시민은 '어촌계와 귀어인의 상생계약서' 작성을 통해 귀어에 따른 갈

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어가구는 전남이 194가구(35.0%)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2가구(27.4%), 경남 54가구(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 귀어 스몰 엑스포의 영향으로 매년 20여명이 전남으로 귀어·귀촌했으며, 매년 150여 명 이상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전남도 내 어촌계를 찾아 귀어 귀촌을 준비에 도움을 받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귀어스몰엑스포가 귀어 희망인들의 귀어 여정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바다에서 시작하는 인생2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찾아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교육 시작

12일 나주 시작...10월까지 22개 시·군 방문 고용주 대상 맞춤 교육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전남도가 현장 찾아가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나주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인

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대책'의 하나로,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전남도는 단순한 법률 설명에서 벗어나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교육 효과를 높이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도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도내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혀 진행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법과 제도의 준수는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장터, 추석 명절 최대 50% 할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약...안전 먹거리 제공 협력

남도장터가 오는 18일부터 추석 명절 기획전에 들어간다. 남도장터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명절 기획전을 통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남도장터 입점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1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도장터 입점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어가 및 소상공인, 중소 농·수축산물 제조업체의 위생·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남도장터는 협약을 통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 지원 ▲위생·품질 관리체계 구축

▲HACCP 및 스마트HACCP 지원을 추진한다.
남도장터는 이미 12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인증원 소속 심사원이 강사로 참여, 추석 명절 대비 식품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해협(HACCP) 인증 전문기관으로,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소비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차단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남도장터는 이같은 품질·위생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추석 명절 기획전을 열고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농·특산물 판매에 나서 도내 농어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 유통 생태계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유럽 산업현장을 가다

18일까지 6박8일 독일 등 방문

전남 직업계고 학생 20명이 유럽 산업 현장을 찾아 글로벌 기술 교육을 체험한다. <사진>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직업계고 1학년 학생 20명이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에 나섰다.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는 광양·나주·보성·담양·순천·여수·장흥·강진 등 전남 11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유럽 산업 현장의 선진 기술

과 직업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토록 해 글로벌 마인드와 실무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연수 참여자는 지난 6월 국내연수 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사전 직업교육을 이수한 데 이어 6박 8일 동안 오스트리아와 독일 직업교육 기관과 기술기업을 찾아 둘러보고 현지 마이스터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산업과 문화, 교육이 융합된 유럽형 직업교육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순사건 14차 실무위 심의 295건 의결...총 5836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제 14차 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신고 295건(984명)의 심의를 의결했다.
실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7465건 중 5836건의 심의를 마쳤다.
이번에 심의한 295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 건수에 대한 100% 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별법 개정에 의한 추가 신고 건수도 조속히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실무위원회는 또 ▲희생자 진료기관 지정병원 운영 기간 연장 ▲위령사업 기념 거점 조성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제2회 평화문학상 개최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아픔 치유,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심의를 완료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 완도서 중학생 진로 탐색 행사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지난 8일 완도군 노화도 노화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섬길따라 과학의 꿈을 잇다(서부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섬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3D펜·과학미술사·과학요리사·업사이클링 환경공예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9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